



국내항만 고부가가치 복합항만으로 개발

해양부, 항만워터프론트 개발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급변하는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물류와 거주, 업무, 관광 등 복합기능을 갖춘 항만 워터프론트(waterfront)개발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이란 화물 컨테이너화, 선박 대형화 등 물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화된 항만이나 준설토 투기장 등 유휴부지에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능(거주, 업무, 상업, 관광, 친수 등)의 항만을 개발·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능전환에 따른 대체시설 등 부족한 항만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의 재정자립 기반을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올해 항만기능전환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 발의하고, 항만별 재개발(기능전환) 시기 결정 등을 위한 노후화 지표 연구,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시범항만 선정 및 시범항만에 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그간 도시환경 및 도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오던 노후항만을 배후도시 기능과 연계된 쾌적한 항만, 활력 넘치는 항만,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도시성장에 따른 시설수요에 대해 투자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부, 선원승무경력서 인터넷으로 발급

앞으로 선원관련 민원서류를 지방해양수산관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승무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해 해양수산 전자민원시스템인 '바다소리'에 접속해 민원신청란을 클릭하면 된다.

지금까지 29만여명에 이르는 선원 및 선원경력자들은 각 지방해양수산관서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는데 민원을 신청, 열람, 발급받기 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따랐다.

해양부는 지난해 7월 전자민원시스템인 '바다소

리'를 구축해 현재 91종의 민원신청, 340종의 민원안내, 민원처리 과정의 실시간 공개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객관리관계(CRM)를 도입해 선원수첩 면허(자격), 선박검사 등의 만기도래를 사전예고하고, 고객별 민원유형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또한 선박원부(선적증서원부) 등·초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등 2종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추가하고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산하기관과의 정보공동이용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해양수산 안방민원 시대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